

이소(가제)

#1 - 교실 - 낮

텅 빈 교실.

책상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놓여 있다.

은찬(19, 남)은 창가 자리에 앉아 책상에 얼굴을 묻고, 이어폰을 낀 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다.
잠시, 교실 안은 고요하다.

그때 윤서(19, 여)가 들어온다.

백팩 끈에 겨울 점퍼를 걸친 채, 자신 있게 교실 안으로 들어온 윤서는 은찬은 부르려고 하는 순간
멈춰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낸다.

은찬을 찍으려던 윤서는 화면 속 은찬을 잠시 바라보기만 한다.

잠시 고민했던 윤서는 드디어 사진을 찍고, 플래시와 찰칵 소리에
자고 있던 은찬이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킨다.

하지만 뒤를 들어본 순간, 피식 웃는다.

은찬

놀래라, 쌤인줄.

윤서

이젠 대학생이니 앞으로 교수들한테 혼나겠네.

대학에 들어간 게 신가하다, 잠만 자는 애가.

은찬

국내에서 받아주는 대가 없어서 해외로 도망가는 주제에...

헛웃음을 터뜨린 윤서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문 쪽으로 향한다.

은찬은 휴대폰이랑 겹옷, 가방을 대충 끌어안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은찬

(텅 빈 교실을 보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고?

윤서는 문 앞에 선 채 뒤돌아보지 않고 문 바깥만 보고 있다.

그리고

윤서는 먼저 떠난다.

은찬은 서랍장을 바라본다. 이제는 비어 있는 두 자리.

이름표가 꽃혀 있던 자리를 손끝으로 한번 쓸어보려다가 멈춘다.

잠시.

은찬은 문 앞에 선다.

텅 빈 교실.

창밖 풍경을 눈에 담는다.

그리고 문을 닫고 윤서의 뒤를 따라간다.

#2 - 학교 앞 - 낮

학교 정문 앞.

윤서는 가방 안의 서류를 하나씩 확인한다.

은찬은 학교 정문을 바라보고 서 있다.

윤서

(혼잣말)

다 챙겼나..

은찬

어?

윤서는 가방 지퍼를 닫고 몸을 돌린다.

은찬의 어깨에 팔을 올린다.

윤서

아냐.

오늘 좀 돌아서 갈래?

은찬이 대답하기도 전에 윤서는 그의 소매를 잡아끌고 걸어간다.

#3 – 길거리 – 낮

천천히 길을 걷는 윤서와 은찬.

윤서는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고, 은찬은 바닥만 내려다보며 걷는다.

은찬

근데 너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냐? 서류만 챙기러 나온 거라며.

윤서

아 뭐, 그렇긴 한데.

또 언제 이 길 걸어보겠나 싶어서.

은찬

에이, 아직 한참 낮았지.

영국은 개강이 9 월이라며? 빨리 가도 몇 달은 남았지.

윤서는 답하지 않는다.

은찬

(이어서)

6 월 초에 너 송별회 할 겸 애들이 펜션 가져.

윤서

아..

근데 나 계획이 좀 앞당겨져서, 펜션 안될듯.

둘은 골목을 돌아 작은 분식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선다.

윤서

늘 먹던 걸로?

은찬이 고개를 끄덕인다.

윤서

(포장마차 주인에게)

오뎅 하나랑 떡볶이 하나 주세요.

잠시 후.

둘은 음식을 받아 근처 벤치에 앉는다.

은찬

(음식 사진 찍으려고 카메라를 꺼내며)

처음 먹어본 지도 거의 10 년인데, 맛이 그대로인 게 신기하다.

둘은 무릎 위에 음식을 올려두고 사진을 찍는다.

은찬

(이어서)

근데 얼마나 빨리 가는건데?

설마 내일 당장 가는 건 아니지?

윤서는 바로 답하지 않는다.

윤서

부럽다,

넌 대학 가서도 여기 올 수 있잖아. 집 가는 길에.

윤서가 은찬의 카메라를 가져와 같이 셀카를 찍으려고 한다.

찍힌 사진 속.

은찬은 얼굴 반쪽을 떡볶이 용기로 가리고 있고,

윤서의 얼굴만 제대로 보인다.

둘은 음식을 먹으며 카메라 속 사진들을 넘겨본다.

조용히 웃고, 사진 속 기억들을 하나씩 집어간다.

그러다 한 사진에서 멈춘다.

버려진 아파트 단지. 그 속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윤서.

아무 말 없이.

윤서가 은찬을 바라본다.

은찬도 그녀를 바라본다.

잠시.

둘은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4 버려진 아파트 단지(외부) – 오후

윤서와 은찬은 낮은 계단을 올라 잠시 멈춰 선다. 눈 앞에 잡초로 뒤덮인 버려진 아파트 단지가 펼쳐진다.

둘은 여러 식물들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간다.

윤서

여기 진짜 빨리 밀어버려야 돼.
초등학교 때부터 이 상태 아냐?

은찬

난 그래서 좋은데,
(주변을 둘러보며)
이 동네에서 마지막으로 안 변한 곳 같아서.

둘은 안쪽으로 들어가 복도 끝쪽까지 와서 벽에 붙어 있는 낡은 게시판 안에 멈춘다.
영수증과 종이 조각들이 수업이 겹쳐 붙어 있다.
윤서는 포장마차에서 받은 영수증을 하나 떼어 게시판에 붙인다.

#5 - 버려진 아파트(내부) - 오후

버려진 방 안
생각보다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다.

낡은 벤치.
줄조명.
구석에 놓인 작은 스피커.

윤서는 들어오자마자 줄조명을 켜고 방 안쪽으로 향한다.
그 순간
뒤따라 들어온 은찬이 카메라를 꺼내 윤서를 찍는다.

찰칵.

윤서가 뒤로 돌아본다

윤서

뭐야?

은찬

여기 다시 못 올 것 같아서.

은찬은 출력된 사진을 들고 벽 쪽으로 걸어간다.

윤서는 스피커 전원을 켜 뒤 천천히 벽 앞으로 다가온다.

수백 장의 사진들.

그 속 윤서와 다른 친구들, 그리고 다양한 사물들:

윤서, 진우, 다른 친구들.

운동장, 분식집, 버려진 아파트.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들.

사진 속 얼굴들은 자라 있고, 장소들은 조금씩 변해 있다.

그러나 은찬은 없다.

사진 대부분의 구도와 시선은 비슷하다.

그러다 구석에 완전 다른 형태의 사진 인생네컷 사진 한 장.

그 밑에 적힌 글씨.

‘은찬, 진우, 윤서’

윤서

이거 안 챙길 거야?

다 떼서 정리해야 되지 않나?

은찬

처음에 다 챙길라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대로 두려고.

윤서는 답하지 않고, 창가로 가 커튼을 닫고, 벤치를 제자리에 밀어놓은 뒤 앉는다.

은찬은 벽의 사진들을 바라보다 천천히 낮은 책상 앞으로 걸어간다.

책상 위에는 키링 편지, 책, 소주병과 라이터가 놓여 있다.

윤서

엄마가 오늘 스피커 가져오래.

은찬

갑자기? 너..내일 가는 건 아니지?

방 안이 조용해진다.

윤서는 대답하지 않는다.

잠시.

윤서

있잖아..나 여기 옥상 한 번도 못 올라가봤는데, 오늘 가볼까?

#6 – 버려진 아파트(복도/계단) - 오후

윤서와 은찬은 아무 말 없이 복도로 나온다.

문으로 막혀 있던 계단 입구를 힘으로 밀어 연다.

좁고 가파른 계단.

둘은 위로 올라간다.

#7 – 버려진 아파트(옥상) - 오후

앞으로는 어두워지고 있는 바다.

뒤로는 산과 도시의 불빛.

갈매기 소리가 들린다.

은찬은 바다를 바라본다. 윤서는 날아가는 갈매기를 따라 시선을 옮긴다.

윤서

나 너 10년 가까이 봤는데,

화내는 거 본 적이 없다.

사람이 어떻게 한번도 안 그러냐..

은찬은 피식 웃는다.

윤서는 계속 갈매기를 바라본다.

윤서

(은찬의 팔을 붙잡고, 옥상 난간 쪽으로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간다.)

한 번 해봐.

은찬

뭘?

윤서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싫었던 거나, 못 했던 말 같은거, 뭐든.

이렇게..

그리고 예고도 없이

윤서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윤서의 목소리가 버려진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퍼져나간다.

윤서는 은찬을 바라보며 웃는다.

은찬은 윤서를 보다가 다시 바다로 시선을 돌려, 윤서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윤서

자, 같이.

하나, 둘, 셋.

윤서와 은찬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목소리가 텅 빈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바다 쪽으로 퍼진다.
윤서가 먼저 멈췄는데도 은찬은 한참 더 소리를 지른다.

숨을 고른 은찬의 눈가가 조금 젖어 있다.

주변이 점점 어두워진다.
아파트 단지와 바다가 서서히 어둠에 잠긴다.

#8 - 골목길 - 밤

윤서와 은찬은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걷는다.
한동안 말이 없다.

윤서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한다.

아무 연락도 없다.

그럼에도 무언가 읽는 척 화면을 내려다본다.

윤서

이제 가봐야겠다.

은찬

응.

늦겠다.

둘은 걸음을 멈춘다.
잠깐 서로를 바라본다.

아무 말도 없다.

그리고-

은찬이 갑자기 윤서를 향해 빠르게 두 걸음 내딛는다.
거의 부딪히듯 윤서를 끌어안는다.
놓치기 싫다는 듯.

윤서도 천천히 팔을 올려 은찬을 안는다.
은찬은 얼굴을 반쯤 윤서의 점퍼에 묻고 그녀를 더 세게 끌어안는다.

둘은 한동안 그대로 서 있다.

멀리 차 소리가 지나가고,
불빛이 스쳐 지나가고,
바람이 분다.

하지만 둘만은 그 자리에 멈춰 있다.

잠시 후.

윤서가 천천히 품에서 빠져나온다.

윤서

...또 보자.

은찬은 대답하지 않는다.

윤서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그저 윤서의 신발 끝만 바라보고 있다.

윤서는 작게 웃어 보인다.
그리고 몸을 돌린다.

그제서야

은찬이 천천히 고개를 든다.

멀어져 가는 윤서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점점 어둠 속으로 사라져간다.

윤서는 계속 걸어간다.
멀리, 윤서의 뒤로 서 있는 은찬의 실루엣도 조금씩 흐려진다.

서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CUT TO BLACK.